

# 해방기 부산미국공보원과 부산음악사회

Busan USIS and Music Field in Busa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남영희\*

**국문요약**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은 5·10선거 이전에는 공보 활동과 선거 홍보에 주력하다가 국무성 산하로 이전한 이후에는 문화 및 교육 사업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부산미국공보원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최초의 지역분관으로서 기념비적이라 기록될 만큼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무성 이전 이후에는 부산음악가협회와 결합하여 문화적 전략 실천의 전형을 선보였다. 이 논문은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부산분관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주한미국대사관 부산미국공보원과 부산음악가협회의 결합이 부산음악사회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역 연주단체와의 결합은 한국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긴밀한 협력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기획의 산물이었다. 양자 간 밀도 높은 결합을 통해 음악의 전문화를 이끌어내고, 감상 대상으로서 음악에 대한 인식과 예술적 상황으로서 음악회를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측 모두에게 유용한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의 냉전 문화전략이라 맹목적으로 비판하거나 단순한 프로파간다의 산물이라 치부하기는 어렵다. 문화정치 관점에서 부산미국공보원이 주도한 아메리카나이제이션(Americanization)의 매커니즘과 영향을 규명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핵심어**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공보원, 부산미국공보원, 부산음악가협회, 부산음악사회, 문화정치, 아메리카나이제이션

- 차례**
- 들머리
  -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과 부산분관의 설립과 활동
  -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공보원의 문화 지향
  - 부산미국공보원과 부산음악사회의 성장

확보하고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주도권 장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문화와 교육 분야의 지원과 협력은 점령국 국민들의 자발적 신뢰와 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하였다. 1946년 폴브라이트법(PL-584)과 1948년 스미스-문트법(PL-402)의 제정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러한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 1. 들머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외선전정책(Overseas Information Program)은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전개되었다. 초기에는 심리전을 기초로 하였으나, 정치·경제적 이익을

미국의 공보 활동에 관한 연구는 역사, 언론홍보, 광고, 문화정책, 문화예술 등의 여러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구축하였다.<sup>1</sup> 미국공보원 지역분관의 문화 활동과 부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1 언론학에서는 미군정의 언론 탄압과 규제, 검열 실태와 영향에 관심을 두었다. 김균, 김민환, 김복수, 박용규, 송건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역사학

산미국공보원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의 실재를 다룬 연구 역시 일부 이루어졌다.<sup>2</sup> 이 연구는 지역에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문화사업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서울 중심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층위에서 전개된 미국의 문화정치와 아메리카나이제이션(Americanization)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시각을 제공했음에도 몇몇 지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먼저, 1948년 5월 선거 이후 공보조직 운영 체계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무게중심을 공보에서 문화사업으로 이동한 측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또한 선전 활동과 문화정치의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지역예술사회에 미친 영향을 섬세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당시 전국 지역분관 설치와 운영의 모델이었을 정도로 높은 위상을 지녔던 부산미국공보원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1947년 5월부터 1948년 6월까지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부산분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무성 주한미국대사관 산하 부산미국공보원과 부산음악가협회의 결합이 부산음악사회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RG332(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 군사실(軍史室) 문서철) 42번 상자에 포함된 문서『1947년 5월 30일부터 1948년 6월 30일까지 공보원 역사(History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30 My 1947 through 30 June 1948)』(이하 G-2 문건), 부산음악가협회 공연 팸플릿, 부산미국공보원 음악회 팸플릿, 부산지역 신문 매체를 실증적으로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구현된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미국공보원이 부산음악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 2.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과 부산분관의 설립과 활동

### 2.1. 미군정 공보부(DPI)와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OCI)

미군정 최초의 공보조직은 조선총독부 관방정보과(Office of Information)를 접수한 조선인관계정보과(Korean Relations and Information Section, KRAI)다. 1946년 남한을 “이데올로기의 전장”으로 표현한 폴리의 시찰 보고서와 9월 총파업, 10월항쟁은 대한(對韓) 공보정책을 강화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를 계기로 설치된 조직이 공보부(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PI)다. 그런데 1946년 말 미군정의 한국인화 방침에 따라 한국인을 공보부 책임자로 임명하고 미국인은 고문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인의 역할이 축소된 셈이다. 1947년 4월 공보부 고문 제임스 스투어트는(J. Stewart)는 존 하지(J. R. Hodge) 제24군단장에게 공보부와는 ‘별개의 공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선전 계획(Propaganda Plan)」을 제출한다. 스투어트는 한국인화가 완료된 군정하에서 공보부 단독으로 공보 활동을 추진한다면 “한국인들은 미국의 메시지를 직접 들을 수 없으며 소수 파벌의 한국인 지도자가 들려주고 싶은 미국을 듣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sup>3</sup> 한편, 1947년 초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재개가 논의되면서 우익의 반탁 시위와 좌익 선전에 대응하고 미소공동위원회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해 5월 주한미군사령부 공보과(PRO) 산하에 강연과가 설치되었다. 교육받은 강사를 남한 전역에 파견하여 매체를 접하기 어려운 한국인들에게 대한정책과 미군정의 입장을 직접 전파하기

에서는 미국의 공보정책, 선거운동, 미국 문화전파의 정치적 의도, 공보조직의 변천, 공보 활동의 실제에 관심을 두었다. 장영민, 정다운, 허은, 정용욱, 박수현의 연구가 있다. 신인섭·김병희는 공보 활동을 PR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문화정책에서는 매체를 이용한 미국문화와 미국 민주주의 이념의 전파와 영향, 미국의 이식을 주제로 삼아 문화정치적 함의를 밝혀낸 김균, 원용진, 차재영, 김영희, 조혜정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화 예술 영역에서는 김한상, 이성철, 김려실, 김은영을 중심으로 선전영화 제작과 문화생전, 미군정기 예술 교육을 다룬 연구가 있다.

2 남영희·이순욱, 「해방기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지역분관의 설립과 문화 활동」, 『석당논총』 78, 동아대 석당학술원, 2020, 5~43쪽;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21.

3 Inclosure #3,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G-2 문건, pp.67~70.

위한 조직이었다. 스템어트가 제안한 ‘별개의 공보조직’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47년 5월 30일 주한미군 일반명령 제10호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Office of Civil Information, OCI)이 설립되었다.<sup>4</sup> 설립 목적은 첫째, 주한미군사령부의 활동과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한국인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공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둘째, 한미 우호 증진과 양국 국민 간 문화와 정보교환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호의를 사고 미국식 삶의 방식과 미국의 외교정책을 수용하며, 점령이 끝난 후에도 양국 간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었다.<sup>5</sup> 한편, 공보원의 설립 배경과 사명에 관한 공식 성명서에 의하면, 하지 장군은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려는 욕망(desire to dominate them)을 품은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한국이 영속적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일을 돕고자(desire to make friend with them and help them found a lasting, independent nation) 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공보원의 사명은 미국의 대한정책에 따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인의 ‘태도’를 창출(creation of attitudes among the Koreans which would lead to action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policy for Korea)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더 잘 알고 친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sup>6</sup>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이 “한미 간의 문화교류를 겸하여 조선 민중에 미국인의 생활 실정을 소개”<sup>7</sup>하는 기관으로 알려진 것은 이러한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적 접근과 실천은 공보원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었다. 『세계신보』, 『농민주보』 등의 신문

매체 발간과 배포, 강연, 캠페인, 연극 상연, 영화 제작과 상영을 비롯해 14개 과업이 추진되었다.<sup>8</sup> 공보원 지역분관의 설치와 운영은 14개 과업 중 첫 번째로 두었을 만큼 중요하게 다루었다. 지역분관을 거점으로 전국 각지에 공보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47년 9월 12일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부산분관으로서의 부산미국공보원 설립을 시작으로 제주, 청주, 전주, 춘천, 인천, 개성,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등의 11개 지역에 분관이 설치되었다.

## 2.2.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부산분관

1947년 9월 12일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부산분관이 설치되었으며, 부산미국공보원으로 불렸다. 책임자는 존 뉴먼(J. Newman)이었으며, 개원 초기에는 1,500원 정도의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 이외에는 아무런 시설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올랜드 워드(O. Ward) 제6 보병사단장과 프랜시스 질레트(F. E. Gillette) 경남지역 수석 민사장교의 강력한 지원을 토대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대단한 성공(extraordinary success)”으로 기록될 만큼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sup>9</sup> G-문건 「주한미군사령부 조직(USAFIK Organization)」 첨부문서 5~11번에 기록된 부산분관의 활동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nclosure #5.** 1947년 11월 10일~1948년 1월 15일 활동 보고(1948년 1월 15일 작성)

유학 준비생 대상 영어강좌 심화반 운영,<sup>10</sup> 공보원 본원 제작 사진 전시회 개최, 1947년 12월 16~21일 추진 활동(『세계신보』 1,792부 배포, 러치(A. Lerch) 장군 메시지 1,268부 배포), 주간 도서관 도서 및 정기 간행물 이용자 157명, 주간 도서관 방문자 223명, 영상물 관람자(매일 3회 상영) 1,187명

4 미군정청 공보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은 일정 기간 이원 체제로 운영되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보부는 우리 정부의 공보처로 흡수되었다. 공보원의 명칭은 ‘민사정보국, 민간공보처, 민정공보처, 민정공보국’ 등으로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당시 널리 사용된 ‘미국공보원’을 부러 쓰고자 한다.

5 남영희·이순옥, 앞의 논문, 11쪽.

6 “USAFIK Organization”, G-2문건, pp.1~2.

7 「미국공보원 신설」, 『독립신문』, 1947.8.12, 2면.

8 “USAFIK Organization”, G-2문건, pp.3~5.

9 Inclosure #5, “USAFIK Organization”, G-2 문건, pp.27~28.

10 아간수업까지 편성하였으며, 부산지역 공립학교에서 학생을 보냈다.

명, 매클루어 장군(General McClure) 방문

**Inclosure #6.** 1948년 1월 1일~1월 31일 활동 보고(1948년 2월 25일 작성)

1948년 1월 29~31일 폐관(수리), 1월 방문자 수 27,437명, 안내 데스크에 전단·팸플릿·포스터 124,591매 비치 및 배포, 1월 13~18일 9천 명 내방(문헌자료 46,523점 이용, 도서관 이용자 1,584명), 전기 부족으로 영화 상영 미 실시(단, 1월 19~20일 점심시간 항만노동자 대상으로 상영), 신설 레크리에이션룸에 『세계신보』 등 문헌자료 비치, 영문법 및 영작문 강좌 수강생 25명, 정문 뉴스 사진 게시판 운영(유엔한국위원회 최근 사진 전시 인기), 『세계뉴스지도(World News Map)』<sup>11</sup> 인기, 1월 24~26일 한국 아마추어 사진작가 수상(受賞) 사진전에 미국인 다수 관람, 뉴스 플래시 방송, 재개관 이후 부산미국공보원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 관련 의견 조사<sup>12</sup>

**Inclosure #7.** 1948년 2월 1일~2월 29일 활동 보고(1948년 3월 20일 작성)

2월 방문자 87,555명,<sup>13</sup> 문헌자료 278,825점 배포, 영화 상영 47편, 도서관 카드 신청 200건

**Inclosure #8.** 1948년 3월 1일~1948년 3월 31일 활동 보고(1948년 4월 15일 작성)

3월 하반기부터 선거 홍보에 주력, 문헌자료 377,803점 배포,<sup>14</sup> 영어강좌 초급반 125명·고급반 25명 등록, 방문자 97,735명,<sup>15</sup> 도서관 이용자 2,350명 이상,<sup>16</sup> 영화관람 16,010

**Inclosure #9.** 1948년 4월 1일~1948년 4월 30일 활동 보고(1948년 5월 15일 작성)

4월 방문자 9만 명 이상,<sup>17</sup> 영화관람 18,500명, 도서관 이용자 2,500명, DM 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전달 1,600명,<sup>18</sup> 성인이 충분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출입 제한, 선거 홍보 관련 별도 보고서 제출

**Inclosure #10.** 1948년 5월 1일~1948년 5월 31일 활동 보고(1948년 6월 15일 작성)

5월 1~10일 선거 캠페인 주력(이후에는 문화 활동에 주력), 5월 방문자 70,392명(열흘 간 내부 수리로 폐관),<sup>19</sup> 문헌자료 1,441,290건 배포, 영화관람 10,192명, 도서관 이용자 1,612명,<sup>20</sup> DM 설문조사 2회 실시<sup>21</sup>

**Inclosure #11.** 1948년 6월 1일~1948년 6월 31일 활동 보고(1948년 7월 15일 작성)

6월 이용자 152,000명 이상,<sup>22</sup> 간행물 및 전단지 247,000부 배포, 어업 당국과 함께 해양어업 사진전 개최, 경남상고 상업미술전시회 개최, 부산여고 수채화 및 수예품 전시회 개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부산분관은 1947년 9월 12일 “삼중정(三中井) 백화점 옆 건물”에서 개원하여 1949년 5

11 어떤 매체인지 알 수 없다.

12 이 조사의 응답자는 100명 정도였다. 시설을 비롯해 부산미국공보원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산미국공보원에서 보는 것이 미국의 실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나 공보원 자금을 가난한 난민들에게 써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묻기도 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수신도 좋지 않았거니와 아나운서의 억양이 독특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가장 호평을 받은 매체는 『세계신보』였다.

13 개관 이래 1월까지 누적 방문자 수 79,000명을 넘어서는 숫자다.

14 대부분 선거 관련 홍보물이었다.

15 남성이 대다수였다.

16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이나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17 남성 5만 명, 여성 2,710명, 학생 2,009명, 미국인 506명, 기타 65명으로 집계되었다.

18 DM 프로그램은 부산 인근 지역의 군 단위까지 문헌자료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19 2/3는 남성, 1/6은 학생이다.

20 절반 이상이 학생, 1/5은 전문직 남성이었다.

21 공보원 자료 및 공보원 후원 라디오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주제였으며, 회수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서 유효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22 도서관 이용자, 전시 및 영화 관람객을 포함한 수치이며, 유례없이 높은 수치였다(Attendance at the Pusan Center was higher than it has ever been before). 그중 성인 남성이 약 98,000명, 여성은 7,000명 미만이었으며, 학생 약 4만 명, 어린이 약 5,600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학교와 교아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단체 13곳의 방문 비중이 컸다.

월 12일 대청동에 위치한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로 이전하기 전까지 1년 8개월간 활동했다. 인용문을 통해 개원 초기 부산분관의 활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활동의 다양성이다. 영어강좌 운영, 사진전시회(공보원 제작 사진전, 한국 아마추어 사진작가 수상 사진전, 해양어업 사진전)와 미술전시회 개최(경남상고 상업미술전시회, 부산여고 수채화 및 수예품 전시회), 영상 상영, 도서관 운영, 정문 뉴스 사진 게시판 운영, 방송(뉴스 플래시 방송, 미국의 소리), 홍보자료 비치(전단, 팸플릿, 포스터), 문헌자료 배포(주로 선거홍보물, 『세계신보』, 『세계뉴스지도』)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공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개원 초기 미국정책의 공보 중심에서 문화기획과 실천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강좌나 전시, 영화 상영, 도서관과 게시판 운영, 방송 들은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문화전략이었던 셈이다.

둘째, 방문자 수의 격증이다. 개원 이후 5개월간 누적 방문자 수 79,000명에서 1948년 6월에 이르면 월 이용자 수가 15만 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문헌자료 이용자, 도서관 방문자, 영상물 관람자 수의 증가는 세부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문객 관리와 같은 운영 방식의 다각화로 이어졌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다. 경남상고 상업미술전시회, 부산여고 수채화 및 수예품 전시회 등의 학교사회의 예술활동에 대한 공간 지원이 대표적이며, 해방 이후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었을 법한 영어강좌 개설과 운영도 마찬가지다. 대체로 부산분관에서는 성인과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했던 것 같다. 이는 미국의 대한정책과 연관하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인의 태도’를 창출하려는 공보원의 사명과 직결된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1948년 2월 부산분관은 모범적인 운영 기관(model operation)으로 기록되었으며, 1948년 3

월 이곳을 방문한 매클루어 장군 역시 “모범적 운영”이라 치하했다. G-2 문건에서도 부산분관의 이례적 성공을 간과(a major oversight in the previous OCI progress report)했다고 기록했을 만큼, 부산분관은 공보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기관이었다. 부산분관을 거점으로 진행한 미국공보원의 공보 활동과 문화사업은 “기념비적(as a monument)” 성과라 할 수 있다.<sup>23</sup>

### 3.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공보원의 문화지향

#### 3.1.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국무성 이전과

##### 방향 전환: 공보에서 문화사업으로

1949년 4월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면서 미국 대표부가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같은 해 7월 공보원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산하로 이양되면서 미국공보원(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으로 변경하였으며,<sup>24</sup> 1950년 3월 미국문화관으로 개칭하였다.<sup>25</sup> 국무성(國務省)<sup>26</sup> 이전이 공식화되기 전부터 공보원에서는 국내 정세의 변화와 조직 체계 및 지휘계통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활동의 방향 전환을 모색했다.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향후 활동과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1948년 5월 3일자 스튜어트의 비밀(Restricted) 편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sup>23</sup>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is center stands as a monument to the abiding interest of the American government and people in cultural affairs.

<sup>24</sup> 한글 명칭은 동일하지만 영문은 전혀 다르다. 즉, OCI(Office of Civil Information)에서 USIS(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가 되었다. 1949년 5월에 개최한 부산미국공보원 신관개원식 당시 기관명은 USIS로 소개되었다. 1953년 미국 해외공보처(USIA) 설치에 따라 해외 국가들에 설치한 미국공보원(USIS,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과의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sup>25</sup> 공식적으로 개칭했는데도 공보원이라는 명칭은 일정하게 통용되었다.

<sup>26</sup> 오늘날의 국무부다. 이 논문에서는 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sup>27</sup> Inclosure #11,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G-2 문건, pp.84~85. 이 편지는 공보원 본원의 요인들과 공보원 지역분관에 전송되었다. 수신자는 다음과 같다. MR. Croucher(Chief of Production Branch, OCI), Mr. Clark(Chief of Press Section, OCI), Mr.

Although the 10 May elections will not decisively alter the OCI program in Korea, the period following the elections will naturally constitute a time during which we must reconsider our functions. [...] The main enduring part of the OCI program will be our OCI Information Centers. It seems to me that our primary Job after the elections, therefore, will be to strengthen our centers. I think our centers, to remain in operation in the new nationalistic Korea and to function efficiently therein, must become **more like community centers** than they are at present. Our headquarters in Seoul must not continue to be purely American in make-up, but must **bring in several Koreans as advisors, and perhaps to constitute an advisory board.**

Our Korean help to date has been somewhat spotty. In some places, such as Pusan and Chonju, we have competent well-regarded Korean chiefs. In none of the centers, including Seoul, have we made **official contact with such civil and artistic groups and societies** which exist in the area. I suggest we work on this point. More and more our pictorial displays should include Korean art work. In planning the displays we should **work in conjunction with local artists and self-styled intellectuals.** Perhaps we can work more closely with schools in publicizing and utilizing our libraries. If, during the formative months of the now Korean government, OCI can work **extremely closely with Korean groups,** then I would say that however unfriendly toward the United States the now government becomes, it will be unable for popular reasons to eliminate OCI from the Korean scene. [...] Our motion picture program, too, must be improved. This will be the subject of a separate memorandum to Mr. Shier. As soon as the program improves we will notify the Branch Offices so that steps can be taken to make full use of the augmented service.

I have long felt that OCI has a definite mission in Korea in

**strengthening or Introducing a civic spirit.** I feel strongly that this will be our greatest post-election opportunity. Please consider this carefully and let me have your views. (강조는 인용자, 이후 인용문도 동일)

인용문에 따르면, 스투어트는 선거 이후 일부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공보원 운영은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기관의 기능은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체제에서도 운영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보원 내 한국인 직원을 늘리고, 한국인 고문단을 두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부산과 전주분관에는 유능하고 존경받는 한국인 책임자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 조직이나 예술가 집단과의 공식적인 접점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스투어트는 한국인 작가의 작품 전시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화가나 지식인들과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도서관 홍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한국인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밀도를 높인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비우호적인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또한 선거 이후의 시점에는 무엇보다 시민정신의 소개와 강화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스투어트의 편지에 대한 공보원 조사분석과 랄프 부식(Ralph R. Busick) 과장의 1948년 5월 6일자 회신이다.<sup>28</sup>

I heartily concur with your memo of 3 May concerning the future activities of OCI. One of our special efforts should be to make the centers **part and parcel of the community life** where they

Busick(Acting Director, OCI), Mr. Colgan(Chief of Visual Section, OCI), Mrs. Croucher, All Branch Managers.

<sup>28</sup> Inclosure #13, “Public Relations” “Relations with Koreans”, G-2 문건, pp.86~87.

are. The center would be an ideal place for public forums such as Dr. Jaisohn's, concerts, public meetings for civic projects, and the like. We could offer them for such purposes and, as you suggest, possibly make them **indispensable to the community**. I should like to see **Korean art encouraged**; not only the handicrafts, but also folklore, folk dancing, folk music, for example. At the same time, we could **present samples of our own culture**. It is all very well for Koreans to play occidental music and paint pictures reminiscent of the western genre, but I suspect that they would do best in a medium which they themselves have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civic spirit** which you mention, offers an excellent opportunity in various projects;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recreation centers such as parks, tree-planting, athletics, cleanliness, fire-prevention, safety campaigns, etc. In connection with these, we might consider giving **special attention to children and youth-arousing their interest**. It so happens that the US has done some very fine things in the way of printing children's books; in fact, that may be the best thing we've done in the way of publications. And the "language barrier" is much less significant in such books. Perhaps we could **install children's sections in our libraries** and use that as a point of departure for other projects. [...]

He could help pave the way for the **cultural program of exchanges of professors, students, and materials** which the State Department undoubtedly will inaugurate. I believe he is in touch with artistic groups in Seoul already.

랄프 부식 과장은 공보원이 대중강연과 콘서트, 회의 등의 여러 목적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민속예술을 장려하고 미국문화의 전형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비롯하여 시민의식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개최할 수 있다. 특히 도서관 아동 코너 설치와 같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흥미를 발현할 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는 개원 초기 'Inclosure #9. 1948년 4월 1일~1948년 4월 30일 활동 보고'에서 어린이 출입을 제한했던 조치에서 한 걸음 나아간 인식이다. 또한 국무성 지원의 교수, 학생 및 자료 교환의 문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은 국무성으로의 이관이 어느 정도 결정된 시점부터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의 지속성과 더불어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다. 둘째,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공보원의 한국인 고용 및 접점 확대,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확대, 시민조직 및 지식인과의 접점 확대, 학교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거 이전에는 공보, 정보, 민정(civil)이 강조되었다면, 이후에는 대중 혹은 공공(public), 문화가 강조되었다. 1948년 2월 이후 설립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지역분관의 명칭이 미국문화연구소나 미국문화원으로 보도되고 있는 사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3.2.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공보원의 목표와 전략

#### : 문명세계와 선진문화의 창(窓)으로서의 표상

미국공보원은 국무성 산하 주한미국대사관 관할 기관으로 변화된 이후 지역사회에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공보원의 위상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 1949년 5월 부산미국공보원 신관 개원식에는 존 무초(J. Muccio) 미국대사가 참석했다.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가 이슈화되었던 시기였는데, 신성모 국방장관과 제임스 스투어트 미국공보원장이 동행했다. 지역 초·중·고 학생의 가두 환영식이 열렸으며, "미군 철퇴 반대" 플래카드를 든 군중 만여 명의 열렬한 환영

을 받았다.<sup>29</sup> 이때 무초 대사는 “미국공보원은 어떤 정치 도구가 아니고 오직 문화지향 및 국가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데 불과하다는 요지의 축사를 남겼다.<sup>30</sup> 문화를 지향하고 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949년 11월 신임 부산미국공보원장으로 부임한 미국인 “코니즈”의 좌담회를 통해 미국공보원 설치 목적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sup>31</sup>

제2차 대전 후 미국 정부는 세계 각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을 각 국가 간의 **문화적 친선**과 그리고 각국 **공보교환**으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념으로 각국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며 현재 당 기관은 국무성의 관할 하에 속하며 우방 각국에서 **미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과 형태** 그리고 **각 사회생활을 선전 계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 58개국에 설치되었으며 소련에 있어서도 활동 범위의 제한과 제압을 받고 있느니 『미국의 소리』, 『미국민의 생활이념』 등을 널리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서는 그러한 목적 이하에 **한국문화발전 급(及) 교육 보급**에도 힘쓰고 있는 것이다. 이 교육사업을 돕기 위하여 내년까지 만흔 우수한 한국인 교수와 학생들을 미국에 파견할 것이며, 미국의 교수와 학생들을 내한시켜 **한국문화를 연구**하게 함으로서 **문화협조**를 할 것이다. 미공보원은 과거 신문언론기관과 만흔 협조를 하였으나 압흐로는 문화관계에 계시는 분과의 관련을 깊게 하고자 한다. 압흐로 한국문화를 연구코저 하는 코니-즈씨와 직접 만나 공보원 운영에 대한 건의와 조흔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 「부산미국공보원 오늘 신관 개원식」, 『민주중보』, 1949.5.12, 2면; 「무초 대사 부산 착, 시민환영대회에 출석」, 『연합신문』, 1949.5.15, 1면.

30 「미국공보원 개관식, 무초대사 참석 하(下) 성대」, 『민주중보』, 1949.5.14, 2면.

31 미국공보원 본원 차장 ‘콜드웰’, 부산지역 문화기관 대표, 신문사 대표, 교육관계자 들의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어서 대청동 진송원(振松園)에서 환영 만찬회가 열렸다. 「한미문화교류에 전력 경주」, 『민주중보』, 1949.11.11, 2면; 「문화단신」, 『민주중보』, 1949.11.9, 2면.

인용문에 따르면, 1949년 말 미국공보원은 문화적으로 친선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토대로 세계 58개국에 설치되었다. 미국공보원을 기반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념을 비롯해 미국사회와 미국인의 생활을 소개했다. 현지의 문화와 교육 발전을 위해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고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존에는 “신문언론기관”의 협조를 중시했다면 앞으로는 “문화 관계에 계시는 분”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명시한 점을 통해 공보 활동에서 문화전략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9년 10월 27일 대전미국공보원에서 열린 스투어트 미국공보원장의 기자회견과 좌담회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sup>32</sup> 스투어트는 미국공보원의 사명을 “미국문화를 한국에 소개하여 한미 문화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영화, 간행물, 전시품, 기타 행사로 선전계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자주독립국으로 인정한다는 미국의 대한정책 기조를 제시하면서, 미국은 한국과 경쟁하지 않고 “한미간 순수한 교육과 문화를 교류”하고, “한국 학생을 미국에 유학시키고 미국의 학생과 전문가를 한국에 오게 하여 연구”하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을 잘 이해해 주기 바란다. 미국인이 한국에 있는 것은 야심도 아무것도 없다. 한국인은 앞으로 미국의 원조도 받을 것 없이 건전한 민주국가가 되기를 바란다”는 무초 대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좌담회는 대전미국공보원장 임철희(林喆熙)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대전미국공보원 고문 정해인이 배석한 가운데 제2사단장 송호성(宋虎聲) 장군과 정보참모, 대전

32 「미국공보원 주최 좌담회, 각계 인사 발언요지 1」, 『충청매일』, 1949.10.29, 2면; 「미국공보원 주최 좌담회, 각계 인사 발언요지 2」, 『충청매일』, 1949.10.30, 2면; 「미국공보원 주최 좌담회, 각계 인사 발언요지 3」, 『충청매일』, 1949.11.1, 2면; 「‘스’ 총재(總裁) 마준 간담회 대성황, 미공보원 주최」, 『충청매일』, 1949.10.29, 1면.

지검 정재환(鄭在煥) 검사장, 도지사 대리 신(申) 교육국장, 도청 문화과장, 경찰서장, 동방신문사 전무, 형무소 교육과장 등의 관공서 관계자와 부인회와 교육회 등 사회단체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다. 모두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라 할 수 있다. 미국공보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국내 소식을 한국에 와서 보도하는 곳(검사장)
- 교육계와는 밀접한 관계, 모든 사정과 문화를 선전 보도하는데 많은 힘을 써주는 곳(도교육국장)
- 미국의 소식을 전하는 곳(동방신문 전무)
- 미국문화를 우리나라에 전하여 우리의 떨어진 수준을 끌어 나가는 기관(도문화과장)
- 미국의 선진문화를 소개하여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기관(제2사단 정보참모)
- 재래 습관을 타파키 위하여 모든 행사를 열어주시는 데 감사(부인회)

미국공보원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의 소식을 전하고, 세계 각국의 정보와 문화를 전파하는 기관이다. 둘째, 선진문화를 소개하여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정신적 위안을 얻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참석자들이 미국공보원에 바라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외국 여성의 활동 상황을 보여 여성을 지도함으로써 부녀의 수준을 높여줄 것(부인회)
- 버리는 그림이라도 학교에 보내줄 것(교육회)
- 수준 낮은 농민을 도와줄 것, 미개자를 미국에 보내 선진문화를 보여줄 것(대전서장)
- 영화와 신문을 통해 재소자에게도 민주적 교양, 사상적 개선과 교화 지도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형무소 교육과장)
- 공동변소를 만들어 일반으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그 수준을 올리도록 해줄 것(대전서장)

지역사회에서는 미국공보원이 제공하는 소식과 문화를 “선진문화”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개”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고착화되었다.<sup>33</sup> 한국에서 미국공보원은 미국의 발전된 문화적 수준을 표상하는 공간이었으며, 미국이라는 문명세계를 보여주는 “문화의 집”<sup>34</sup>이자 문명화된 사회를 들여다보고 동경하도록 만드는 창이었다고 볼 수 있다.

## 4. 부산미국공보원과 부산음악사회의 성장

### 4.1. 전문연주단체의 성장과 향유기반 확대

부산미국공보원은 선거 직후인 1948년 중순 이미 문화 활동에 주력(cultural activities predominated)했다고 기록할 만큼 이른 시기부터 활동의 중심이 공보에서 문화사업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변화는 1949년 5월 대청동에 위치한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에 신관을 개원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도서관을 비롯해 공연, 전시, 집회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갖춘 신관의 개원은 지역사회에서 새롭고 세련된 문화예술공간의 탄생과도 같았다. 당시 부산미국공보원의 존재는 다음과 같이 인식되었다.<sup>35</sup>

향토 부산의 문화를 논할 때 부산미국문화관의 존재를 제외 못한다. 문화행사의 태반이 문화관과의 협조로써 이루어졌던 사실을 생각할 때 누구나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것이다.

33 마산미국문화관 설치 예정에 대해 “시민의 문화면에는 상당한 공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미공보원 불원(不遠) 내 설치」, 『남조선민보』, 1950.4.15, 2면.

34 「잠자는 공보원 인사(人事)」, 『남선경제신문』, 1950.4.20, 2면.

35 홍일파, 「미문화관 개관 1주년 경축음악회에 갔다가」, 『부산일보』, 1950.5.16, 2면.

부산미국공보원은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에 협력함으로써 결코 “제외”할 수 없는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국무부로 소속이 전환될 무렵에 준비하고 검토했던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미국공보원이 국무성 산하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전된 이후 각 지역 공보원장으로 한국인이 선임되었음에도 부산미국공보원에는 여전히 미국인 책임자가 파견되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36</sup>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지역분관으로서 기념비적인 성과를 기록한 곳이었다 만큼 공보원 본원에서 부산미국공보원의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부산미국공보원이 부산음악사회의 성장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음악단체의 후원, 음악회 장소 제공, 대규모 청중 초대와 같은 부산음악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관람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했다.<sup>37</sup>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음악가 협회를 지원하면서 부산지역 전문 연주단체가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음악이 감상 대상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둘째, 서울교향관현악단이라는 대편성 교향악단을 초청하고 단체 관람을 유도하여 부산시민과 학생들에게 음악회 관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셋째, 레코드 감상회와 음악강좌 개설로 폭넓은 음악청중의 형성을 촉발하고, 음악교양과 비평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sup>38</sup>

36 대구미국공보원장은 양씨에 이어 동경제국미술학교 출신으로 경주여중 교장을 역임한 도 교육국 중등계 장학사 주재경이 임명되었으며, 대전미국공보원에는 원장 임철희, 고문 정해인이 위촉되었다. 「대구미국공보원에 주재경(朱載慶) 씨를 임명」, 『남산경제신문』, 1950.5.4, 2면; 「한미문화교류에 전력 경주」, 『민주중보』, 1949.11.11, 2면.

37 남영희, 앞의 논문, 202~218쪽.

38 특히 부산미국공보원이 개원 2주년 축하를 위해 서울에서 연주자를 초청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부산 연주자들을 무시한 처사로 인식하여 서울 연주자들의 연주력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부산이든 서울이든, 기성이든 신인이든 모두 “오십보 백보”의 실력이며, “피차 공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관점을 피력했다. 홍일파, 「미문화관 개관 1주년 경축음악회에 갔다가」, 『부산일보』, 1950.5.16, 2면.

#### 4.2. 부산음악가협회의 결성과 음악의 전문화

해방기 부산지역 연주단체 부산음악가협회의 결성과 활동은 부산미국공보원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로 이루어졌다.<sup>39</sup> 이는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국무성 이관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지향했던 전략을 실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한국인과의 접점을 넓히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미국공보원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부산음악가협회는 부산미국공보원이 주최한 ‘실내악을 주(主)로 한 음악회’(1949.9.16-17)에 출연한 정복갑, 배도순, 김점덕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sup>40</sup> 부산미국공보원에서는 부산음악가협회에 사무소 공간을 내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체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부산음악가협회 정회원은 간사장 정복갑, 고문 양성봉, 총무 홍일파, 작곡부 간사 윤이상, 성악부 간사 김호민, 기악부 간사 배도순, 평론부 간사 김점덕이다. 초대 부산시장을 지내고 경남지사로 재임 중이던 양성봉을 고문으로 영입하여 음악단체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1</sup> 또한 찬조회원을 별도로 모집했다. 회비는 월 200원이며, 부산음악가협회 주최의 공연 관람과 월간 회보 수령을 혜택으로 제공하였다.<sup>42</sup> 부산음악가협회 공연 활동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sup>43</sup>

부산음악가협회의 활동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른바 “순(純)음악” 추구다. 정치사회적 목적에서 음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 대상으로서의 음악 그 자체를 구현하고자 했다. ‘실내악을 주로 한 음악연주회’와 ‘부산현악사중주단 발표 대연주회’는 소나타, 트리오,

39 남영희, 앞의 논문, 54~56쪽.

40 우신출, 「문화일지 회고 1」, 『자유민보』, 1949.12.29, 2면.

41 『정복갑 독창회 ‘우리 가곡의 밤’ 팸플릿』, 1949.12.20.

42 현재 회보가 남아있지 않아 실제 발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찬조회원 가입신청서는 부산음악가협회 사무소를 비롯하여 광복동 옥산악기점, 동광동 일광악기점, 광복동 대영악기점, 영주동 부산악기점에 비치하였다.

43 『자유민보』, 『부산일보』, 『산업신문』, 『국제신문』, 『정복갑 독창회 ‘우리 가곡의 밤’ 팸플릿』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작품번호와 악장, 팀포의 표현은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적지 않다.

〈표 1〉 부산음악가협회 공연 기록

일자	행사명	장소	프로그램	출연자	비고
1949. 9.16~17	실내악을 주로 한 음악연주회	부산미국공보원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제8번 제3악장 슈베르트/ 백조의 노래 제5곡 바닷가에서 슈베르트/ 마왕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번호 미상) 소팽/ 즉흥 환상곡 이건우/ 금잔디 베르디/ 아이다 中 청아한 아이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번호 미상) 비제/ 진주조개잡이 中 나디르의 로망스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제2악장	Vn.배도순 Vn.김학성 Vn.김광수 Vn.백경준 Vc.윤이상 Pf.박지로 Pf.강수범 Pf.한세우 Ten.김진안 Ten.김호민 Ten.정복갑	미국공보원 주최
1949. 12.20	정복갑 독창회 '우리 가곡의 밤'	부산미국공보원	홍난파/ 옛동산에 올라 나운영/ 달밤 김세형/ 찢어진 피리 조두남/ 새타령, 뱃노래 안기영/ 오-나의 마음, 작별 윤이상/ 편지, 달무리 이건우/ 소곡(小曲), 꽃가루 속에, 엄마야 누나야, 산(山) 박태준/ 아! 가을인가	Ten.정복갑 Sp.정경순 Vn.배도순 Pf.한세우 Pf.박지로	부산음악가협회 주최
1950. 1.28	부산음악가협회 제2회 정기연 주회 '미국민요의 밤'	부산미국공보원	포스터/ 기러기, 켄터키 옛집, 스와니강 스코틀랜드 민요/ 애니로리, 즐거운 나의 집, 한 떨기 장미 베토벤/ 로망스(번호 미상) 모차르트/ 피아노 삼중주 제4번 헨델/ 라르고		미국공보원 주최
1950. 2.21~22	제3회 부산음악가협회 연주회 '부산현악사중주단 발표 대연주 회(제1회)'	부산미국공보원	슈베르트/ 악흥의 순간 제3곡 베토벤/ 세레나데 op.8 제4악장 폴로네즈풍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전악장 모차르트/ 현악사중주 제15번 제2악장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11번 제3악장 터키풀 푸치니/ 토스카 中 오묘한 조화 안기영/ 오! 나의 마음 하이든/ 현악사중주 제17번 세레나데	Vn.배도순 Vn.김광수 Va.백경준 Vc.윤이상 Ten.김호민	
1950. 2.26	상이군인 원호 주간 기념 상이군 인 위안음악회		미상		부산병사구사령 부 주최
1950. 3.23~24	부산음악가협회 제4회 정기공 연 및 제3회 학생피아노연주회 '모차르트의 밤'	부산미국공보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16번 제1악장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11번 제1, 3악장 모차르트/ 미뉴엣(미상, 바이올린 독주) 바흐/ G선상의 아리아(바이올린 독주)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비창 전악장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모차르트/ 밤의 감정(테너, 미상) 슈베르트/ 눈물(테너, 미상) 피아노 독주곡(미상)	Pf.정형강 Pf.백정원 Pf.한옥희 Ten.김진안 Vn.김광수 Pf.박용해 Pf.정진우	
1950. 4(예정)	배도순 제금연주회	미상	미상	Vn.배도순 외 미상	개최 여부 불명
1950. 5(예정)	김점덕 독창회 '슈만 가곡의 밤'	미상	〈시인의 사랑〉 전곡	Bar.김점덕 외 미상	개최 여부 불명
1950. 6.6~7	제5회 부산음악가협회 연주회 (아코디온 연주)	부산미국공보원	미상		개최 여부 불명

콰르텟 등 실내악곡, 오페라 아리아, 예술가곡으로 프로  
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정복갑 독창회'와 '김점덕 독창회'  
역시 프로그램을 한국과 외국의 예술가곡만으로 구성했  
다. 특히, 좌익 작곡가로 분류된 안기영과 이진우의 작품

을 선곡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시기는 문화예술계의 이념  
재편이 이루어진 시점이었으며, 무엇보다 부산미국공보  
원과 연관된 단체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  
다. 부산음악가협회가 “순음악” 추구를 표방한 단체였던

만큼 이념적 저항이라기보다는 작품 그 자체로 이해하기를 호소한 행위로 추정된다.

둘째, 음악후속세대의 양성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관심을 발현하는 데 특별히 주목할 필요(giving special attention to children and youth-arousing their interest)가 있다고 본 공보원 조사분석과장 랄프 부식의 견해와도 일맥 상통하는 지점이다. 부산미국공보원에서는 “초중등 학생들의 음악감상과 기악 기술의 향상에서 더욱 학구적인 정확성을 복도와 주기 위하여” 학생피아노연주회를 개최했다. 제2회 학생피아노연주회(1949.10.28~29) 출연자는 찬조 출연자를 제외하면 모두 학생이며, 베토벤, 하이든, 바흐, 쇼팽 곡이 연주되었다.<sup>44</sup> 제3회 학생피아노연주회는 부산음악가협회 제4회 연주회와 겹쳐 “모차르트의 밤”을 주제로 열렸다. 1부는 학생, 2부는 기성 연주자가 출연했으며, 특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전악장 연주는 주목할 만하다. 관현악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로 진행했지만,<sup>45</sup> 협주곡 전곡이 연주된 것은 이례적이다.

셋째, 목적이 뚜렷한 행사 참여다. ‘상이군인 위안음악

회’는 주최측인 부산병사구사령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행사성 음악회로 보인다. 제2회 정기연주회 ‘미국민요의 밤’은 미국과 스코틀랜드 민요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미국의 문화와 정서를 잘 드러내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 공연은 부산미국공보원이 주최한 공연으로, 팸플릿에 수록한 「주최자의 인사」에 의하면 “자라나는 부산음악가 협회를 도우고 또 서로 협조하여 한미간의 문화를 우리들의 힘으로 교환하여 가면서 서로 문화의 좋은 점을 뽐내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인 예술가들과의 밀도 높은 결합을 토대로 한미 양국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고자 했던 미국공보원의 지향점이 뚜렷하게 구현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음악가협회의 공연 활동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으로 팸플릿의 형식을 들 수 있다. 이 단체의 팸플릿은 단순히 프로그램과 출연단체를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곡 목해설, 공연평, 공연 목적과 관련한 단평 등을 수록하고 있다. 사실 팸플릿 형식의 변화는 부산음악가협회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부산미국공보원 주최의 공연에서 엿

〈표 2〉 부산미국공보원에서 열린 공연 팸플릿의 체제

일자	행사명	주최	체제			
			1면	2면	3면	4면
1949. 9.16~17	실내악을 주로 한 음악연주회	부산미국 공보원	표지	프로그램 및 출연자(국문)	프로그램 및 출연자(영문)	광고
1949. 10. 28~29	제2회 학생피아노연주회	부산미국 공보원	표지	프로그램 및 출연자	-박지로, 「Bach's invention禮讚」 -박지로, 「Beethoven's Pathetic Sonata(in C minor op. 13)」	-박지로, 「Chopin Fantaisie-Improptu(in Csharp minor op.66)」 -「미국공보원 인사말씀」
1949. 12.20	정복갑 독창회 '우리 가곡의 밤'	부산음악가 협회	표지 출연자	프로그램	공연예고 (부산현악사중주단 발표연주회)	-부산음악가협회 찬조회원 규약발취 -본회 주최 음악회 예정 -부산음악가협회 정회원 명부
1950. 1.28	부산음악가협회 제2회 정기연주회 '미국민요의 밤'	부산미국 공보원	표지	프로그램 및 출연자	-공연예고(부산현악사중주단 실내악의 밤) -「주최자의 인사」 -광고: 음악다방 에덴, 공영식품공업사	-홍일파, 「인사말씀」 -광고: 청구서림, 미장원 영미(永美)
1950. 2.21~22	제3회 부산음악가협회 연주회 '부산현악사중주단 발표 대연주회(제1회)'	부산음악가 협회	표지 출연자	프로그램 (국문)	프로그램(영문)	-홍일파, 「부산현악사중주단 발표공연을 보면서」 -공연예고: 모차르트의 밤
1950. 3.23~24	부산음악가협회 제4회 정기공연 및 제3회 학생피아노 연주회 '모차르트의 밤'	부산미국 공보원	표지	프로그램 및 출연자	홍일파,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에 대하여」	홍일파, 「모차르트와 그의 예술」

44 남영희, 앞의 논문, 214~215쪽.

45 솔로 파트는 피아니스트 박용해, 피아노 반주는 정진우가 맡았다.

볼 수 있다. 가령, 제2회 학생피아노연주회에는 피아니스트 박지호가 쓴 곡목 해설 3편이 수록되었다. 「바흐의 인벤션 예찬」, 「베토벤 비창 소나타」, 「쇼팽 즉흥 환상곡」이 그것이다. 바흐의 〈인벤션〉은 피아니스트가 테크닉 향상을 위해 거쳐야 할 “불가피한 답석(踏石)”, 즉 이 상적인 교본인 동시에 한 곡 한 곡이 예술적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베토벤 〈소나타 제8번 비창〉은 베토벤이 이 곡에서 처음으로 소나타와 피아노 스타일을 완성시켰으며, 청력을 잃어가는 절망 상태가 드러난다고 소개했으며, 쇼팽 〈즉흥 환상곡〉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곡”으로 표현했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제3회 학생피아노연주회 팸플릿에는 평론가이자 부산음악가협회 총무 홍일파의 모차르트 관련 단평 2편이 수록되었다. 「모차르트와 그의 예술」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에 대하여」이 그것이다.<sup>46</sup> 전자에는 모차르트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소개하면서 모차르트를 “하이든, 베토벤과 더불어 윈(빈-필자)의 삼(三) 대가”라 일컬었다. 후자에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제23번이 가장 유명하면서도 “최고 걸작”이라 소개하였으며, “관현악 반주를 제2 피아노로써 대연(代演)하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모차르트의 ○감한 악상을 맞볼 수 있음은 반가운 일”이라 평가했다. 제1회 부산현악사중주단 연주회 팸플릿에는 홍일파의 평론 「부산현악사중주단 발표공연을 보면서」를 수록하였다.<sup>47</sup>

음악○○에서 기악이 갖이는 바 의의는 참으로 크다. 서양 음악이 동양의 그것에 비하여 고도로 발달된 것은 무엇무엇 하여도 그 악기의 우수성과 정묘한 표현성에 달린 것이니 더욱 현악기의 섬세한 음률적 효과는 비할 나위 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음악의 극치에 이끄러 올리고야 마는 것이다.

46 『제3회 학생피아노 연주회 ‘모차르트의 밤’ 팸플릿』, 1950.3.23~24, 3~4면.

47 「부산현악사중주단 발표공연을 보면서」, 『제1회 부산현악사중주단 연주회 팸플릿』, 1950.2.21~22, 4면.

향도가 가지는 유일의 현악사중주단의 이번 공연이야말로 우리의 수준을 자랑할 수 있는 악원(樂苑)의 감도(感濤)이며 정중동(靜中動)을 찾고 ○○ 가운데 ○를 맞볼 수 있는 실내악의 예술적 향기는 각 파-트의 자아발견과 아울러 전체적 안산불(양상불-필자)의 통일성이 자아내는 음미(音美)로서 실로 악곡의 최고이며 연주가로서도 가장 뜻있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이다.

금후 우리가 강호에 약속하는 것은 꾸준한 노력과 희망으로써 우리 악단(樂壇)의 좋은 자랑이 되겠다는 것이다.

인용문에서는 “악기의 우수성과 정묘한 표현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서양음악의 우수성을 찾고 있다. 특히 현악기는 “섬세한 음률적 효과”로써 “음악의 극치”로 우리를 이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현악사중주단의 결성과 첫 공연은 부산의 음악적 수준을 자랑할 수 있는 “악원의 성사”라 평했다. 각 파트별 “자아발견”, 즉 개개인의 탄탄한 연주기량과 “양상불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실내악의 예술성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표현하였다.

부산음악가협회에서 발행한 팸플릿은 해방기 부산에서 펼쳐진 수많은 공연과 행사 팸플릿 제작의 일반적인 형식과는 달랐다. 곡목 해설과 단평, 공연평 등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안내지가 아니라 소박하나마 음악전문 매체로서의 성격을 확보했다. 팸플릿이라는 매체의 탄생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서양 고전음악이 감상의 대상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으며, 음악회를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예술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음악가협회는 전문연주단체를 지향했다. 이 시기 부산에는 기악 및 성악 연주자와 연주단체가 여럿 활동하고 있었다. 구성원은 대부분은 교사-음악가이며, 음악애호가나 비전공자와의 결합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부산음악가협회는 연주자와 연주단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들과는 구별되는 전문성

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미국민요의 밤’은 애초 “신조선악단연주회”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공연 팸플릿에는 “부산관현악단의 모체가 될까 한 관현연주로서 호화스러운 푸로”를 계획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sup>48</sup> 부산에는 1947년 김학성의 주도로 결성한 부산관현악단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미려악단, 신조선관현악단, 새한악단 등의 연주단체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sup>49</sup> 부산음악가협회에서는 이를 전문 연주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학성이 1948년 결성한 현악사중주단이 있었음에도 부산음악가협회 부산현악사중주단을 “항도가 가지는 유일한 현악사중주단”으로 언급한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5. 마무리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은 한국인의 미국 이해 제고를 위한 공보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한미 우호관계의 증진과 문화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5·10 선거 이전에는 공보활동 및 선거 홍보에 주력하다가 국무성 주한미국대사관 산하로 이전한 이후에는 한국인의 문화 활동 장려, 미국문화 소개, 교육 교류사업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한국인과의 밀도 높은 결합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의 정치,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자 후원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공보원의 성공은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성과를 초석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공보원의 문화사업은 공보활동의 연장 및 확장의 측면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공보원

의 문화사업은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호의를 형성하기 위해 전개한 공보활동과 일정하게 연동되는 셈이다.

부산미국공보원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를 오롯이 살피 볼 수 있는 사례다.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최초의 지역분관으로 설립되어 기념비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무성이 전 이후에는 부산음악가협회와 결합하여 문화적 전략을 실천하는 전형을 선보였다. 공보 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도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기관이었던 셈이다. 특히 부산음악사회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구심점으로 작용했다. 서울지역 서양음악 연주단체의 활동에 미군정 학무국의 지원이 적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부산미국공보원의 지원은 부산지역 전문 연주단체의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물론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타자화, 문화예술 분야의 엘리트주의, 순수예술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 고전시대 음악에 집착하는 성향 등을 내면화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산음악사회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음악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음악을 순수 감상 대상으로 인식하며, 음악회를 예술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부산미국공보원과 부산음악가협회의 결합은 국무성 이전을 앞둔 시기부터 ‘기획’된 사업모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부산미국공보원 주도의 하향적 방식이 아니라 부산음악가협회와 적극적이고 밀도 높은 결합 구조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었다. 즉, 지역 음악인들은 미국공보원의 지원을 기반으로 전문 연주 활동을 펼칠 수 있었으며, 미국공보원은 공보원 운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부산미국공보원의 부산음악가협회 지원은 문화정치적 측면에서 맹목적으로 비판하거나 단순한 프로파간다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부산미국공보원은 한국전쟁기 미국대사관으로 운영

48 『미국민요의 밤’ 팸플릿』, 부산미국공보원, 1950.1.28; 『정복갑 독창회 ‘우리 가곡의 밤’ 팸플릿』, 부산미국공보원, 1949.12.20.

49 남영희, 앞의 논문, 147쪽.

하였으며, 전후 1960~1970년대에는 부산미국문화원으로 개칭하여 교육과 문화사업에 주력했다. 일제의 수탈기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자리에 터를 잡아 해방 이후 줄곧 한미 우호증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1980년대 한미 불평등 관계의 상징적 건물로 인식되어 1982년 방화 사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96년 미국 연방정부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었다가 1999년 미국공보처가 해체되면서 우리 정부에 반환되었다. 이후 부산근대역사관으로 운영되다가 2023년 3월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으로 개관하여 라키비움, 즉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 공간의 변천은 곧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이루어진 한미관계의 역사와 다르지 않으며,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전개된 부산지역 문화예술사회의 성장과 발달의 변곡점이기도 하다.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은 한두 가지의 주도적인 변인에 의해 단기간에 이루어진 현상이 아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현상한다는 점, 심지어 같은 지역일지라도 계급, 세대, 성별, 소득,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sup>50</sup> 부산미국공보원을 기반으로 부산지역에 나타난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의 매커니즘, 결과와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대한민국이나 부산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공보원이 설치된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유사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역 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1947년 5월 30일부터 1948년 6월 30일까지 공보원의 역사(History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30 My 1947 through 30 June 1948)』, 주한미군사령부 군사실 문서철(RG 332,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USAMGIK, U.S. - 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 『민주중보』, 『자유민보』, 『부산일보』, 『산업신문』, 『국제신보』, 『부산신문』, 『충청매일』, 『독립신문』, 『연합신문』, 『남조선민보』, 『남선경제신문』 등 신문기사.
- 『실내악을 주로 한 음악연주회 팸플릿』, 부산미국공보원, 1949.9.16~17.
- 『제2회 학생 피아노 연주회 팸플릿』, 부산미국공보원, 1949.10.29.
- 『정복갑 독창회 '우리가곡의밤' 팸플릿』, 부산미국공보원, 1949.12.20.
- 『미국민요의밤' 팸플릿』, 부산미국공보원, 1950.1.28.
- 『제1회 부산현악사중주단 연주회 팸플릿』, 부산미국공보원, 1950.2.21~22.
- 『제3회 학생 피아노 연주회 '모차르트의밤' 팸플릿』, 부산미국공보원, 1950.3.23~24.

### 2. 단행본 및 논문

- 강정구의 여럿편,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백의, 2000.
- 김덕호·원용진 편, 『아메리카나이제이션』, 푸른역사, 2008.
- 정용욱, 『미군정 자료연구』, 선인, 2003.
- 제갈삼, 『초창기 부산음악사』, 세종출판사, 2004.
- 김균, 「미국의 대외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한국언론학보』 44(3), 2000.
-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21.
- 남영희·이순옥, 「해방기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지역분관의 설립과 문화활동」, 『석당논총』 78, 동아대석당학술원, 2020.
- 박수현, 「미군정 공보기구 조직의 변천(1945.8~1948.5)」,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방선주, 「미국 제24군 G-2 군사실 자료 해제」, 『아시아문화』 3, 1988.
- 장영민, 「미군정기 미국의 대한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16, 2001.
- 장영민, 「정부 수립 이후(1948-1950) 미국의 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31, 한국근현대사연구학회, 2004.

50 김덕호·원용진, 「미국화, 어떻게 볼 것인가」, 『아메리카나이제이션』, 푸른역사, 2008, 11~45쪽.

---

**Abstract****Busan USIS and Music Field in Busa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Nam, Young-Hee | Pusan National University

USAFIK OCI focused on public affairs and election promotion to the 5·10 election, but after the transfer to the U.S. Embassy USIS under the Department of State, the focus of its activities shifted to cultural and educational projects. Busan USIS is a good example of this shift. It was established as the first local branch of USAFIK OCI and achieved monumental achievements, and after becoming Busan USIS under U.S. Embassy, it was combined with Busan Musicians' Association to embody the practice of cultural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ail the activities of the Busan Branch of USAFIK OCI and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combination of the Busan USIS under U.S. Embassy and the Busan Musicians' Association on the growth of the Busan music society. The combination with the local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can be seen as a strategy designed to expand support for the activities of Korean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in order to form a close working relationship with Korean. Nevertheless, the active and intensive engagement between the two sides paved the way for the professionalization of music, the recognition of music as an object of appreci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concerts as an artistic context. Given that it was a win-win strategy for both sides, it is difficult to blindly criticize it in terms of cultural policy or dismiss it as mere propaganda. Based on the US Embassy's USIS, multifaceted and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on the mechanisms and effects of the Americanization phenomenon in Northeast Asia.

**Keywords** USAFIK OCI, U.S.Embassy USIS, Busan USIS, Busan Musicians' Association, Music Field in Busan, Cultural Politics, Americanization

---